

---

# 5 분 자 유 발 언

-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



**고성군의회**  
(우정욱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는 유난히 건조한 날씨와 잦은 산불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7년 만에 약 20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경찰관이  
늦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  
2인 탑승 금지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과 이용자 인식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킵보드 제한 구역’의 시범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킵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동킵보드 운행을 금지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범 구역 구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등에서는  
무단 방치된 키포드에 대해 전인과 비용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전인 구역, 유예 시간, 징수 비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홍보활동에 더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우리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